

# 새내기들을 위한 제언

이민지 (경영학과 05학번)



##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새내기 여러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나요? 저는 이곳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끽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학이란 공간은, 한 반, 한 학년 속에서만 생활하던 고등학교와는 달리, 매년 몇 천 명의 학생이 입학하는 광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 주어진 것인데, 이 기회는 결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업과 과외 활동을 통해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2005년부터 도입된 신입생 세미나 수업은 15명 내외의 강의로, 동일한 관심 분야를 가진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게만 느껴지는 교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 강의를 선택적으로 듣는 것도 타과생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꿈꾸셨던 대학생활,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혜원 (건축학과 01학번 대학원 2년)



## 문화와 삶의 다양성을 체득하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다. 대학시절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아리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 동아리 공간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는 곳이다. 따라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삶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홀로 여행을 다녔던 것이다. 여행은 단지 유명한 유적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여 이해하고, 그 지역민과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혼자 여행을 가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

삶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판단에 의해 충분히 다양해 질 수 있다. 대학시절 동안 삶을 풍부하게 하는 많은 경험을 통해 문화와 삶의 다양성을 체득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유나 (통계학과 01 대학원 1년)



## 나를 찾는 여행

5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친 선배로서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는 신입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술 한 잔,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모은 돈으로 여행을 하라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단함을 이겨내는 여행, 눈으로 마음으로 문화를 느끼는 여행, 우연이 인연을 만들어내는 여행. 여행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통로인 것 같다. 여행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음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보는 국토대장정은 어떨까? 서울을 벗어나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유명하지 않은 사찰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어떨까? 한 가지만 기억하자. 어떠한 여행이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여행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박진광 (외교학과 05학번)



## 수업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라

대학생활에서는 전공 과목을 통한 심도 있는 학문탐구도 중요하지만 새내기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시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목(역사, 예술 등)을 선택하여 지식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후일에 전공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할 때에도 기본 지식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1학년들에게 수강이 권장되어 있는 핵심교양은 4개의 분야로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쓰기가 강조된 수업이어서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학문적 글쓰기의 기초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한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4개 분야 과목을 이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할 때에 선배들이나 커뮤니티의 과목평도 참고해야겠지만 교수님들이 올려놓으신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수업인지, 또 배우고 싶은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대학에서의 수업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만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신중한 과목 선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의 첫발을 힘차게 디디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통계학과 05학번)



## 대학 1학년, 자기 성찰의 시간

제한된 울타리 속에서 일정한 구속을 받았던 고등학교에서 벗어나 그간 동경해 온 대학에 들어오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온몸으로 자유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인해 많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목표를 상실한 채 방황하기 쉽다.

최근 광역화 모집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평점을 잘 받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부하기에 앞서 내가 왜 대학에 들어왔고,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정리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신입생으로서의 1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혼자 여행을 가보거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또 동아리나 동호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점검하면서 보람된 대학 1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오충환 (미학과 00학번)



## 글 잘 쓰기의 비결은 질보다 양

대학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쓰기가 아닐까.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습의 결과물은 결국 '글'이다. 조금 과장하면, '리포트' 한 편으로 글쓴이의 사고능력뿐 아니라 성실성까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대학에서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보고서를 써야하는 '취업'에도 마찬가지다. 글은 자신의 분신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많이, 자주 쓰는 것이다. 강준만 교수와 같은 글쓰기 고수들도 한결같이 글쓰기 비결은 '질보다는 양'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혹자는 글쓰기가 꾸준한 훈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스포츠'라고까지 한다.

그동안 신입생들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이나 추천 영화 같은 것은 참 많았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대학이라는 공간은 글쓰기를 단련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글쓰기 관련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도서관에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쌓여있다. 그러니 많이 읽고 무엇보다 많이 써보자. 누구에게나 '대문호'의 길은 열려있다.